

국세청, 화물업체 번호판 대여금 등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3월31일까지 법인세 전자신고 실시
총 106만5000개 대상...전년비 6만6000개 ↑
수출증기 2만4000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작년 12월 결산법인인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앞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인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인 약

106만5000개로 지난해 99만9000여개보다 6만6000여개 증가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할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해 총 2만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분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기한부터는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앞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이슬기자

안전·편의성 강화...보쉬 '18V 충전 원형톱'

브러쉬리스 모터 적용...집진 기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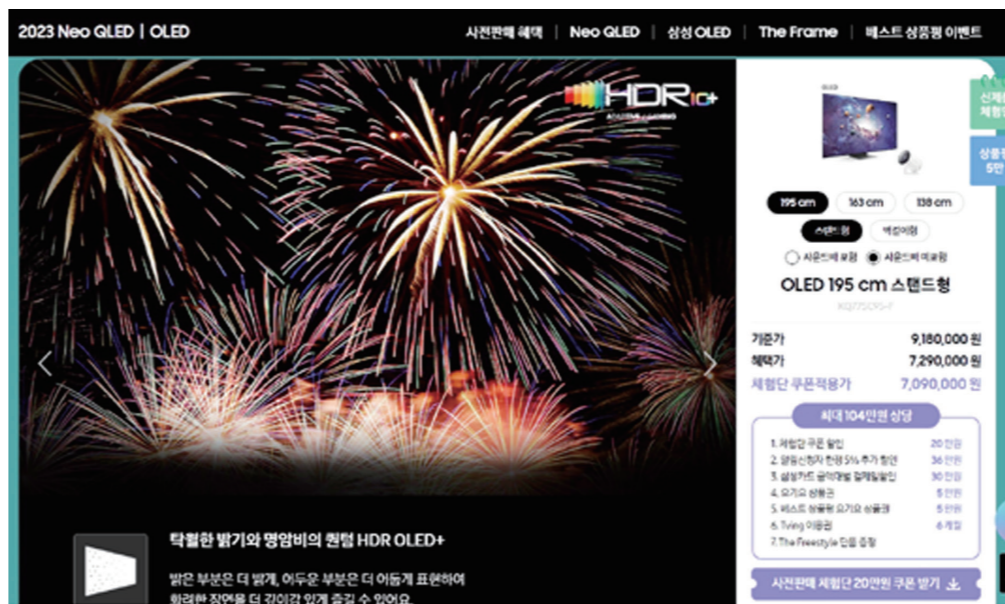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안전·편의기능을 추가한 전문가용 18V 충전 원형톱 'GKS 18V-57-2 Professional'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GKS 18V-57' 대비 모터 성능, 베벨 각도폭, 각종 안전·편의 기능 등이 보강됐다. 특히 보쉬의 고성능 브러쉬리스 모터를 적용해 절단 성능이 대폭 강화됐다. 신제품의 최고 무부하 속도는 5000rpm이다. 기존 대비(3400rpm) 향상됐다. 목재를 90도 직각 절단 시 최대 57mm 깊이까지 절단이 가능하다.
보쉬는 안전 기능으로 모터 브레이크와 함께 집진기 연결 포트를 활용했다. 모터 브레이크

크는 공구의 작동을 중지할 때 날을 빠르게 멈추는 기능이다. 또 보쉬 진공 청소기 전제품과 호환되는 클릭앤클린(Click & Clean) 집진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한다. LED(발광다이오드) 라이트와 작업 표면의 송풍 기능을 통해 시야를 확보해준다.
신제품의 최대 베벨 각도는 기존의 45도에서 50도로 증가했다.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 무게는 2.8kg이다. 전방에 추가된 보조 핸들과 360도 회전 가능한 집진기 연결 포트, 사다리나 톨벨트에 공구를 걸 수 있는 공구 걸이가 추가됐다.
이번 제품은 베어툴로 나왔다. 종이 케이스와 제품 본체, 원형 톨날 1피스, 평행가이드로 구성됐다. 제품에 포함된 원형 톨날은 충전공구 전용 번들 날이다. 배터리 지속 시간을 길게 유지해준다. 공구 걸이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원형톱은 기존보다 모터의 성능부터 안전 기능, 제품의 경량화까지 대폭 향상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뉴스시

삼성 올레드TV, 최대 200만원 할인...LG도 할인 맞을까?

삼성 77형 올레드TV, 사전 판매 918만→709만원



삼성전자가 파격적 사전판매 혜택을 앞세워 10년 만에 국내에서 선보인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열풍에 시동을 건다. 사실상 대대적인 할인 정책이 나서는 것으로 '올레드 10년 명가인 경쟁사 LG전자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형 '삼성 OLED' TV의 내달 출시를 앞두고 OLED TV 사전 구매 시 70만~209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화면 크기가 가장 큰 77형은 출고가 918

만원인데, 할인이 적용되면 72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 사전판매 체험단 쿠폰 할인까지 받으면 가격은 709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때 각종 상품권까지 담으로 얻을 수 있다.
LG전자의 77형(OLED77C2SNC) 올레드 TV 출고가가 743만7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할인은 파격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65형의 경우 648만원에서 389만원으로, 55형은 334만9000원에서 264만원으로 사전판매 가격을 낮췄다.
이런 할인 공세는 그동안 올레드 TV 시장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 180도 다른 태도다. 삼성전자는 2013년 올레드 TV를 출시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10년 만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2일 올레드 TV 등 2023년형 TV 사전 판매 첫날 수원 디지털시티를 방문해 신제품을 시연하고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소프트웨어, 사용성(UI) 개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회장이 올레드 사업을 직접 챙긴 것은 이달말 벌써 두 번째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QD-OLED'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워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때 "올레드 TV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삼성전자는 올레드 TV 시장에 이제 선두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따라 LG전자의 대응책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지난 10년간 올레드 TV 시장에서 푹신 있게 시장을 개척해왔다. LG전자는 내달 2023년형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가 가격 할인 맞불을 놓을 경우 국내 고급 TV시장은 모처럼 양사의 대결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음디아는 올레드 전 세계 올레드 TV 출하량을 전년 대비 14% 성장한 741만대로 예측했다.
김재환기자



소주 가격 또 오르나?

주류회사들이 지난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올렸던 소주와 맥주가격을 또다시 인상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소주를 꺼내고 있다.

다음달부터 1600cc 미만 車 살때 채권 안 사도 된다

아반떼급 차량 대상...매년 76만명 약 400억 경감 효과
2천만원 미만 계약 채권매입 면제, 사업자 40만명 혜택
채권 표면금리 2.5%로 인상...年 3800억 국민부담 줄 듯

오는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은 현행 1.05%(서울 1.0%)에서 2.5%로 높아져 국민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와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채권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격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 매도해 손해를 본다.
내달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배기량 1598cc 아반

떼 차량을 살 때 차량가격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 금융회사에 팔거나 차량 구입과 동시에 10.7%의 할인율로 매도해 17만4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기도 주민이라면 차량가격의 6%인 109만원어치 지역개발채권을 사고 7.6%의 할인율을 적용해 8만3000원을 손해보는 일이 없어진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21년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명(신규등록 28만명, 이전등록 48만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행안부 측 추정이다.
국민 부담 경감액은 매년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각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과 창원에는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60억원 줄어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채권의 표면금리는 종전 1.05%(서울 1.0%)에서 2.5%로 인상됐다.
종전에는 표면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아 채권을 사들여 만기가 지 보유하더라도 4~5%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서울은 20%에서 10.7%로, 타 시·도는 16%에서 7.6%로 각각 조정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민이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할 때 할인매도 비용은 110만원에서 58만원으로 약 52만원 낮아지게 됐다. 3000만원 상당의 1999cc급 소나타를 샀을 때 327만원의 채권을 사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했을 때 손실액이 65만4000원에서 35만원으로 30만4000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전체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고금리와 고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